



## 이 달의 인터뷰

# 육가공협회를 찾아서

지난해 12월 27일부로 사단법인 한국육가공협회가 설립인가 되었다. 축산물의 소비중 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육가공산업의 발전은 가격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과 새로운 수요창출이라는 면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 육가공협회로 김동곤 상근 부회장을 만나 보았다.

기자-협회가 창립되자마자 축산물가공식품의 일부가 수입 개방 되는 등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부회장님은 양계를 전공하셨으니 앞으로 닭고기나 계란을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어려운 때 수입개방되어 대책 강구해야

김부회장- 우선 7월1일부터 수입이 개방될 가공식품으로 소세지 이외에 소세지 유사 조

제 식료품과 돼지고기 닭고기 통조림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양돈 양계업이 불황이 온다고 하여 돼지마리수를 감축하자는 양돈인 필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강제로 마리수를 감축하고 있는 이때 수입을 개방한다는 것은 양축가나 육가공업자들로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육가공산업의 역사는 7~8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31개업체의 대부분이 3~4년전 창업되어 아직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고 시장확보도 안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원료육의 주가되는 돼지고기의 경우 가격면에서 지육기준으로 지난 2월3일 미국은 1.200\$ (996 원) 인데 국내원료 가격은 2,200₩으로 두배가 넘어 기술보다도 우선 가격면에서 경쟁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에 다음사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1. 수입개방을 안하는 것이 가

장 좋고 개방하더라도 국내산업이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기반조성될때까지 연장해 주시고

2. 부득이 수입할경우 수입관세를 35%에서 100%로 인상하고 수입품에 부과금을 부과해 줄 것을 건의 했습니다. 이러한 제반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원료육을 도입하도록 조치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기자-현재 육가공품 소비현황은 어떠합니까?

### 육류소비량의 2% 정도가 가공품

김부회장-년간 우리가 약60만톤의 고기를 먹는데 이중 14만톤이 가공품입니다. 이중 대부분이 카트미트이고 14,000t 정도가 가공품으로 소비량의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값싼 모산품이 대량 수입되면 생산자



육가공품 원료육의 수입개방에 대한 현안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김부회장(좌)의 모습

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자—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안정을 위해서는 원료 다변화가 필요한데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 앞으로 닭고기도 육가공 제품원료로 각광받을 터

김부회장—우선 국내에서 생산되는 토끼고기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본에 kg 당 3\$정도로 월10~15t이 수출되고 있는데 월 50t정도가 생산되고 있어 협동조합을 통해 토끼고기를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노계육인데 적절한 가격으로 일정한 품질의 닭고기를 공급한다면 상당한 물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계협회에서 많은 협조를 하여주시요.

기자—현재 육가공제품은 어떤형태가 있습니까?

### 젊은층 소비늘어 전망 밝다.

김부회장—포장육 제조업체들이 삼계탕, 햄버거, 핫도그 등의 제품을 만들고 대업체들이 소세지, 햄, 베이컨과 각종 캔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육가공산업은 발전되어야 할 산업이면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층은 주로 젊은층이며 20대이하에서 가공품을 즐겨 소비하고 있습니다.

년간 20%정도 수요가 신장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원료육의 가격진폭이 크고 제품이 비싸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선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86년에는 원료육인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큰 적자를 본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기자—앞으로 육가공산업이

김부회장은 국립종축장 대전지장장 농수산부 축산과장, 국립종축장 부장장, 축협중앙회 이사, 한국가금협회이사, 닭경제능력검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양계전문가이다.

발전되어 새로운 수요도 창출되고 양계산업 발전의 암적준재인 가격 등락도 어느정도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닭고기의 가공에 많은 연구와 신제품 개발 등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